

“위안부 문제, 한국이 운동주체로 나서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미래복지포럼서 발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정부는 일본과 100여 차례 접촉했다. 그리고 20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라고 규정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비난 집회가 이어졌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운동주체로 앞장서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소장은 “UN을 비롯한 세계 기구들도 일본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대국 패권주의의 △양심적 지지자의 엘리트주의 △정부의 강력한 역할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신)은 8월 14일 전법회관 6층에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현황과 나눔의 집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아젠다형성 전략’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전후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의 연대운동에 있어 우리가 운동의 주체로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

안소장은 “일본과 동아시아지역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해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든 구조라 일본의 범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결하는 일은 매우 힘든 것이 아시아의 현실”이라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협력해 인권문제 인식 확대와 기구의 발전, 세계사회에 강력한 국제법과 그 시행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권 소장은 현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일본 민간단체 및 변호사들과 긴밀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자 및 변호사 집단과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 운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소장은 운동 중 피해자와 ‘양심적 지지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날 포럼에는 김순옥(91세)·박옥순(89세) 할머니가 초청됐다. 박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강제징용당한 경험을 증언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상처로 괴로워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나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 나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 나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은

사찰서 물놀이하고 영화도 만들고 ‘Good!’

천태종복지재단, 지역아동위한 천태여름캠프 개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8명은 평창 대흥사에서 물놀이, 뮤직비디오제작, 발우공양, 108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산사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영화 창작체험에 아이들이 흠뻑 젖었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은 8월 9~11일 평창 대흥사에서 ‘문화창작체험 2012 천태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 10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8명이 참가해 대

흥사 경내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상화 교수(부산예술대)를 비롯한 전문 스텝이 참가해 아이들에게 뮤직비디오 제작을 지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천태종은 아이들이 인내심

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발우공양과 108배 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흥사 주지 인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십년 후 이십년 후 나라를 이끌어갈 새싹이자 기둥이니만큼 더욱더 훌륭하게 자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빈곤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행사였다.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불교라는 익숙한 분위기에서 탈피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하고, 아이들을 문화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화창작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이 새롭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며 “천태종복지재단은 앞으로 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행복한 결혼준비 되셨나요?

조계종복지재단, 미혼 남·녀 위한 결혼준비교실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실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신)은 8월 23·30일, 9월 6일 오후 7~9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천년지애(千年之愛) 행복한 결혼준비교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 초청된 강숙정 박사(한겨레 상담센터 소장)는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녀간 이해와 존중, 건전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방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8월 23일에는 ‘일견종정(一見鍾情)-첫눈에 반하다’를 주제로 이성 간 서로에게 끌리는 상호심리적 역동에 대해 알아보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 남녀간 해결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8월 30일에는 ‘동상이몽(同床異

夢)-같은 공간 다른 생각’을 주제로 남녀의 성(性)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 부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9월 6일에는 ‘천년지애(千年之愛)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부부간 건강한 마음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과거부터 전해오던 가족사의 무의식적 되풀이 습관들을 교정하며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감정문제 해결방법을 익힐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율 급증 등 심각한 가족해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장애인봉사 ‘아름다운 손길’ 창단

성북장애인복지관 7월 30일 발대식 가저



관장 현관 스님과 10여 명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손길’ 봉사자들.

“나눔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7월 30일 장애인들이 모여 결성한 자원봉사동아리 ‘아름다운 손길’의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손길’은 성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자원봉사 동아리다. 지난 6월 가정 ‘장애인봉사동아리’로 창립을 준비한 ‘아름다운 손길’ 봉사자 10여 명은 무더위도 잊은 채 봉사단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아리의 기틀을 잡아 왔다. 복지관은 “아름다운 손길은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단장을 선출해 회칙을 논의하는 것까지 봉사자들의 탐과 노력이 고스란

히 녹아 있는 단체”라며 “봉사자들이 동아리에 갖는 의미와 애정이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손길’의 조윤희 단장은 “동아리가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성원이 3개월 이상 꾸준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름다운 손길은 9월까지 교육을 통해 전문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손길’만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지압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현관 스님은 “장애가 있다고 타인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아름다운 손길들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장애·비장애 뛰어넘어 하나됐어요”

철산복지관, 청소년 캠프 ‘알알이 품은 꿈’ 개최



레프팅 체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8월 8~10일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장애·비장애청소년 40명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알알이 품은 꿈’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주제로 진행된 공동체 활동과 미니 올림픽 등을 통해 장애·비장애

를 뛰어넘는 협동심을 길렀다. 이외에 △선암마을(한반도 지형) △탄광문화촌 △사진박물관 관람 및 동강레프팅 활동 등으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해 의미 있는 여름방학 추억을 남겼다. (02)2617-0410 이나은 기자

본·각·선·교·원

주말단기출가 ‘깨달음 징검다리’ 멘붕 힐링!

본각선교원은 복잡다단한 현대생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멘붕힐링을 넘어 깨우치게 하려고 직장인들의 주말을 이용한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 개강 : 2012년 9월 7일 / 9월 21일 시작 ◆ 강 의 : 매일 1, 3주 주말 오후 6시부터 일요일 9시까지
◆ 내 용 : 불교입문, 참선(경기명상 비파사나선과 불조선),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공부, 현대과학철학, 무한수학, 시각 선법회 등 유기적 학습
◆ 교수진 : 홍익대 김원수 교수, 한양대 임종록 교수, 경기대 고준환 교수, 선재선사 등
◆ 접 수 : 수시 선착순 접수 (수강료 10만원, 불경제공)

강 의 일 정		
요일 및 시간	내 용	교 수
금 18시-19시	접수 및 상호교류인사	사무총장
금 19시-20시	나는 누구인가? (교향 나그네)	본각 선교원장
금 20시-21시	부처님의 일생(불교입문)	·
금 21시-22시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미리쓰는 유언)	·
토 9시-10시	현대과학 철학	임종록 교수
토 10시-12시	비파사나선과 아함경	·
토 12시-14시	점심식사 및 운현궁 경기명상, 맞절 108배	·
토 14시-17시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교수
토 17시-19시	초발심자 참구법과 불조선	고준환 교수
토 19시-20시	저녁식사, 대각사 산책	·
토 20시-22시	법화경과 보살도, 참선철야정진	고준환 교수
일 10시-12시	시각 선법회 동참	각선원 선사 선재
일 12시-14시	점심 및 운현궁 경기명상, 맞절 108배	·
일 14시-16시	불교와 무한수학	임종록 교수
일 16시-18시	불이문과 세계평화	본각 선교원장
일 18시-19시	저녁식사, 파고다공원 경기 명상	·
일 19시-21시	보살대중의 탄생(종현토론, 소감적기, 졸업)	·

본각선교원 상설 석가대학원

우리는 중생불! 단박 깨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 뿐이고, 누구나 정진하기에 따라서 단박 깨칠 수 있다.

◆ 개강 : 9월 1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 강의내용 : 천문지리(풍수) 김문용 원장 수요일 오후 2시부터(2시간) 금강경과 법화경 김원수 교수, 고준환 교수 목요일 오후 5시부터(2시간)

* 강의는 원칙상 2개월 단위로 하며(입회비는 3만원, 불경제공),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5만원 (특강은 별도)

본 각 선 교 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전화 02)762-4848 http://cafe.daum.net/BonGagAcademy (弘益人間 光化世界)

두 타선원 (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급원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해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로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 마음은 하나 <본선원장 법현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먼 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현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제 <법현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혀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제 <법현스님>	수류도법(水流道)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현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 중무직 봉사자 모집 (혜택 :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